보도자료	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	
배포즉시 ('20.3.16)	협회 사무국	T. 02) 778-3270~2 F. 02) 778-3280

제 목 : (사)개성공단기업협회, 코로나19 피해 관련 대구지역 성금 전달

◇ (사)개성공단기업협회(회장 정기섭)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가 큰 대구지역에 성금 및 구호물품 전달.

◇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 대량 생산 가능, 조속히 국제사회 설득해야.

(사)개성공단기업협회(회장 정기섭)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맞아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를 돕자는데 뜻을 모아 성금 1,700여만원과 마스크 5천장(㈜에버그린 기부), 방역용 방호복 1천벌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모금회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.

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"비록 공단이 4년이상 닫혀 있어 여력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, 대한민국 기업이자 국민으로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추진했다"며 "조속히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"고 말했다.

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"개성공단은 마스크, 방호복, 세정제 등 방역 용품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." 라며 "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.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개성공단의 가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UN안보리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북한과는 개성공단 재개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제안을 해 부분적으로라도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 끝